목포시, 구조조정 반발 시향 단원 대거 해고 파장

27명에 해고통지·퇴직급여 신청 안내 통지문 발송

市 "조건 수용 땐 철회" 노조 "혼란 틈타 강행하나"

목포시가 구조조정에 반발한 시립교향악단(이하 목포시향) 단원을 대거 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정리해고 대상 단원 27명에게 '목포시향 단원 해고 통지 및 퇴직급여 신청안내' 통지문을 발송했다.

앞서 시는 3월 29일 해고예고 통보 이후 2차례에 걸쳐 해고 시한을 연기하면서 목포시향 노조에 정리해고 철회를 조건으로 고소·고발·진정 취하와 예산확보 공동 노력 등을 제안했다.

또 7월 이후 예산이 떨어질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예산확보시 임금 소급적용, 노조차원의 대시민 사과문 등을 주문했으나 확답이 없었다는 게 목포시의 주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는 정리해고 회피를 위해 최대한 양보해 제안을 했으나 노조 측으로부터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면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노조와 합의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는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향 노조는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시름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해고통보하는 게 맞느냐"는 시기론(論)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목포시가 지난달 29일 해고통보 이후 2차례에 걸쳐 해고시한을 유보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해고를 단행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포기하고 온 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호(40) 노조 지회장은 "앞으로 해고된 단원들과 함께 출근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감안해 1인 시위나 거리 음악회 등은 당분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정리해고 철회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안을 보면 고용보장도 안 돼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실상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목포시향 단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한편 목포시는 시의회가 목포시향 체질개선 등을 이유로 당초 올해 예산 13억7000만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5000여만원을 삭감하자 시향 단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방과후 학교 강사 초청

보성교육청, 연찬회

보성 교육지원청(교육장 윤남순)은 지난 22일 보성영재교육원 다목적실

에서 관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이학균 전 순천 왕운초 교장을 강사로 초빙해 '작은 실천이 미래의 차이를 만든다'는 주제 강연에 이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 교장은 재직 당시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교사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영혼을 다루는 마술사, 수업 연출자로서의 소임이 중요하다"면서 "외부강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기능을 전수해주는데 그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식 재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순 교육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과 후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면서 "보성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전남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찬회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동기부여의 장(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가꿔주는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부강사들도 보성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돕기 나눔장터 순천시민들이 23일 시청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돕기 모금 나눔장터'를 찾아 물품을 고르고 있다. 순천KYC(대표 김상일) 주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우회 부인봉사대 (대표 옥나영) 후원으로 열린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위한 성금으로 기탁된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전남도 농업인구 23년만에 늘었다

지난해 37만954명 … 전년보다 340명 증가

친환경농업 육성 귀농·귀촌인구 증가 덕분

전남도의 농업인구가 지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농가는 총 16만4834호로, 인구는 37만954명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농가는 586호, 인구는 340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농가 인구가 늘었다.

전남의 농가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1990년 9000여명이 반짝 증가한 이후 2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라 젊은층의 귀농·귀촌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한 인구는 전년보다 24.6% 늘어난 3261가구, 6962명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2012년 농가 인구는 9153명이 줄어든 반면 2013년에는 340명(0.1%)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농가 인구가 전년보다 6만4105명(2.2%)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006명이 늘어났으나 남성은 666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3.7%로 전년보다 0.8% 늘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풍부한 일조량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영농 조건을 갖춰 귀농인구와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비교우위 농업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젊은 도시민이 찾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슬픔 함께하자"

전남·북 축제 취소 잇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남·북 지역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연기되고 있다.

23일 전남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장성 홍길동 축제와 함평 나비 축제, 화순 힐링푸드 축제 등이 취소되고, 남원 춘향제와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신안 흑산 홍어축제 등은 연기됐다.

■ 취소·연기된 전남·북 축제

축제명	예정	취소·연기 일정
완도 해조류 박람회	~5월 11일	간소화
해남 두륜산 유채축제	25~26일	취소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25~27일	취소
장성 홍길동 축제	25~27일	취소
전남도 체육대회	29~5월 2일	6월 10~13일 연기
남원 춘향제	5월 1~6일	잠정 연기
담양 대나무 축제	5월 1~6일	6월 27~30일 연기
화순 힐링푸드 축제	5월 2~6일	취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5월 2~6일	10월 연기
함평 나비축제	5월 2~11일	취소
화순 수만리 철쭉축제	5월 3~4일	취소
화순 운주문화 축제	5월 5~6일	취소
신안 흑산 홍어축제	5월 10~11일	무기한 연기
곡성 세계 장미축제	5월 23~6월 1일	축소 운영

개막 14일째를 맞은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오락공연을 취소하고 전시·관람 위주로 간소화해 치르고 있으며, 곡성 세계 장미축제도 축소해 운영된다.

함평군은 각종 체험행사와 공연을 모두 취소하는 대신 함평 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나비생태관과 자연생태관, 다육식물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관람은 5월 말까지 유료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범국민적 애도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부득이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병수)도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힐링푸드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화순군은 진도 팽목항 현지에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 자제를 지시했다. 신안군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흑산 홍어축제를 무기한 연기했고, 남원시도 춘향제를 잠정 연기했다.

곡성군은 세계 장미축제를 예정대로 운영하되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막식과 개막축하쇼, 지리산 자락 장미콘서트 등 K-POP, 7080 가수 초청 대규모 무대 공연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전시와 체험행사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무안에서 개최예정이던 전남도 체육대회를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재 대비 소방훈련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는 지난 22일 백운 아트홀 앞에서 공연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